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불려일으키다 [히브리서 10:24-25]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19-25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세 가지 위대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합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성경구절 이전 구절에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담대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사랑하며 선한 일들을 불려일으킬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느냐보단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가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장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세상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야할지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믿음에 대해, 삶에 고민들에 관해 나누고 단순히 즐거움을 누리는 만남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무한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듣는 귀를 가지고 말을 되도록 적게 해야만 합니다. 이런 덕목은 단순히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서로 일으켜 세워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최선의 것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에 관해 예리하게 지적하고, 서로서로 자극이 되어주며, 서로를 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앎으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이것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온전한 본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5) 에 관해 나눠보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려면 우리는 모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서로를 격려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를 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그 분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표현합니다. 고독한 기독교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나아갈 수 있기 있도록 이끌기 때문에 위대한 것 입니다.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나눠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의 삶입니다. 관계를 맺고 접촉하는 사람들, 적은 수 단위의 만남들, 성경공부, 교제의 시간들, 찬양의 시간들, 배움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격려의 시간들 또한 사회적 만남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요?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교회 생활에 신실하게 참여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세우는데 헌신하며 교회의 감독과 규율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사랑을 굳세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가 그 분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주셨고 그 분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한 소망 안에 신실하게 머물며 서로를 격려합시다.